지혜 품고 행복 물들이는 화왕〈花王〉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⑪ 불국토를 장엄하다, 꽃들의 왕 모란(牡丹)

얼마 전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성황리에 거행됐다. 요즘 MZ세대가 쓰는 단어인 '힙불교'라는 말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례다. 그렇기에 요즘 주목받는 예술 분야가 바로 불교미술이다. 그런데 수많은 불교미술을 살펴보면 '모란(牡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제작된 소통(疏筒)과 불패(佛牌) 바탕을 보면 붉은 모란으로 가득 채워 놓았고, 괘불을 비롯한 여러 불교 회화에는 부처님을 에워싼 신광(身光) 주변에 모란이 장엄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식, 사찰벽화 등 여러 불교미술에도 모란은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 여러 불교 경전과 기록에서 모란이 언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모란은 우리 불교문화에서 연꽃과 대등할 만큼 비중 있는 문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모란의 상징과 의미, 그리고 불교미술 속 모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신라의 모란, 교훈을 주는 화왕계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모란의 기록은 신라 선덕 여왕(善德女王, 재위 632~647)의 〈지기삼사(知幾三事)〉 속 모란 이야기와 원효 대사(元曉大師, 617~686)의 아들이자 대학자 설총(薛聰, 655~?)의 '화왕계(花王戒)'이다. 설총이 신문왕(神文王, 재위 681~692)에게 들려주었다던 '화왕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어느 날, 꽃들이 살던 나라의 왕 모란 앞에 빛나는 얼굴에 아름다운 옷을 차려 입은 장미와 허름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할미꽃이 나타나 자신을 써 줄 것을 청했다. 장미는 자신의 미모와 요염함을 내세워 모란을 곁에서 모신다 했고, 할미꽃은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음을 내세우며 쓰지만 도움이 되는 약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략〉 그러자 할미꽃은 "제가 온 것은 임금님께서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뵈니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임금 된 자가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는 이는 드뭅니다"라고 말하며 꾸짖었고, 그제서야 모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할미꽃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문왕은 큰 깨달음을 얻어 이를 기록해 대대로 교훈으로 삼게 했고 설총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장미는 아첨만을 떠는 간신(奸臣)을, 할미꽃은 왕이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충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충신(忠臣)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신하를 옆에 두는가에 따라 성군(聖君)이 될 수도, 폭군(暴君)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알려 준다.

사찰에 자리 잡은 모란과 최치원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만 들여올 수 있었던 모란은 당시 궁궐이나 귀족들이 살던 집 정원 정도에서만 심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귀한 모란을 모든 사람이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사찰이었다.

사찰에 모란이 심어지게 된 계기는 당시 중국 유학을 다녀온 유학생들에 의해서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신라 6두품 출신 학자인 최치원(崔致遠, 857~?)으로 알려져 있다. 최치원은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친 후 관직에서 물러나 전국을 유랑했는데 〈태평통재(太平通載)〉에 실린 그의 기록 중 모란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 주목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속세를 떠나 산과 강에 묻힌 스님들을 찾아갔다. 작은 서재를 짓고 석대에서 문서를 탐독하고 풍월을 읊조리며 그 사이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았다. 남산 청량사(淸凉寺), 합포현(合浦縣) 월영대(月影臺), 지리산 쌍계사(雙溪寺), 석남사(石南寺), 묵천석대(墨泉石臺) 등에 모란을 심어 지금까지 남아 있으니 모두 그가 떠돌아다닌 흔적이다.

물론 〈태평통재〉가 조선 중기에 간행됐고, 내용 가운데 그가 요절한 두 자매의 영혼을 만나 사랑을 나눴다는 등의 판타지 요소도 일부 있지만 말년 부분에 있어서는 〈삼국사기〉 기록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최치원에게 모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왜 하필 사찰에 모란을 심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당나라 사찰 정원에 모란이 많이 심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 유학생 시절 이와 같은 광경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가 말년에 여러 사찰을 방문했다는 정황상 자신의 심신을 불교에 의지하고 유학 생활을 추억하면서 사찰 곳곳에 모란을 심었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기록에 등장하는 사찰 중 청량사는 최치원이 마지막으로 은거했다고 전하는 해인사와 동일한 합천에 위치하며, 〈삼국사기〉에도 그가 청량사와 쌍계사를 즐겨 찾았다는 내용이 있다. 여러 기록을 통해 당시 귀하게 여겨졌던 모란이 사찰에 심어지게 됐고, 그 배경에는 최치원이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양산 통도사 영산전 내부 천장 모란문(조선 후기).


수월관음도(고려 14세기,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의 왼쪽 하단에 표현된 모란.


목조 소통(조선 후기, 통도사성보박물관).

연꽃에 대등할 만한 비중 있는 문양
중국 다녀온 유학생들이 사찰에 심어
고려시대부터 불교미술에 본격 등장
복식 문양과 불화 속 공양화로 표현

공양화, 부처를 찬양하다

모란은 신라부터 전래됐고,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범종과 기와, 승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모란이 불교미술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재배와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고려시대부터다. 고려 사람들의 모란 사랑은 각별했다. 당시 최고의 문장가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시 중에는 꽃을 주제로 한 사례도 꽤 전해지는데 이 중 모란에 관한 시는 20여 편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정습명(鄭襲明, ?~1151)의 '석죽화(石竹花)' 중 "세상 사람들이 붉은 모란만을 좋아하여 뜰에 가득히 심어 두지만"이라는 구절에서는 당시 집집마다 모란을 심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는 불교국가였고 자연스레 고려 불교미술 속에도 모란이 표현되기 시작한다. 이는 고려미술을 대표하는 도자기와 금속공예에도 보이지만 백미는 역시 화려한 귀족불교를 보여주는 불교회화다. 고려 사회에는 현실과 사후의 복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이 성행해 아미타 신앙이 유행했고, 고려불화 대부분이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된 주제로 제작된다.

고려불화 속 아미타 부처님은 붉은빛과 금빛으로 빛나는 대의(大衣)를 걸치고 있는데, 대의에 새겨진 큼직한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덩굴 문양과 모란이 조화롭게 얽힌 모습이다. 이와 같이 불화 속 인물의 복식에 그려진 모란은 고려시대 사람들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당시 복식문화까지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모란은 복식문양뿐만이 아니라 관세음보살께서 머문다는 보타락가산에서도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모든 중생을 구원해 준다는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부처님 못지않게 유행했는데 이 관세음보살을 표현한 수월관음도에서는 산 중턱에 앉아 계신 관세음보살과 깨달음을 얻고자 찾아온 선재동자, 그리고 갖가지 보석와 함께 배치된 모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 속 모란과는 거리가 멀다. 마치 누군가에게 선물이라도 하려는 듯이 가지런히 꽂꽂이한 투명한 수반(水盤)과 화병에 담겨 관세음보살 바로 발밑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불화 속 화병에 담겨진 모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불보살에게 바치는 '공양화(供養花)'일 가능성이 높다. 예로부터 꽃은 '만행화(萬行花)'라고 하여 인고의 세월을 견뎌 봉오리를 피운다는 수행의 상징물로 향·등·과일·차·쌀과 함께 육법공양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 공양물에는 각기 희생과 광명, 깨달음, 청량, 환희의 뜻이 내포돼 있으며 수행을 상징하는 꽃 역시 이들과 함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불보살에게 바치는 공양화를 수많은 꽃 가운데 하필이면 모란으로 표현한 것일까?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동양에서 모란은 꽃들의 왕, 꽃 중의 꽃이었다. 이런 인식에서 모란은 귀한 상징으로 여겨져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왕실과 귀족의 전유물이었고 모란이 대중화된 고려시대에도 최고의 꽃이라는 수식어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공양이란 불보살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꽃을 올리는 헌화공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꽃은 무엇일까? 물론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도 있겠지만 사람의 선택은 당연히 모란이었을 것이다. 불보살은 불교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꽃 또한 가장 화려한 모란이요, 그 격에도 맞다 생각했을 것이다.

이처럼 최고의 꽃 모란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화로 인식됐고, 이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불화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표현 범위가 점차 넓어져 수미단(須彌壇), 불패 등 다양한 불교미술 주에 등장한다. 여기서 수미단은 부처님이 계신 수미산(須彌山)을 형상화한 불단을 의미하니 불국토를 공양화인 모란으로 장엄하는 것이고, 불패 또한 부처님 그 자체를 상징하니 그 주변을 모란으로 꾸미는 것이 곧 헌화공양인 것이다.

공양화, 부처를 찬양하다

모란은 불교에 자리 잡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왔다. 우리 불교문화 속 모란은 아름다운 화왕인 동시에 지혜와 교훈을 주는 매개체로, 헌화공양을 하는 공양화이자 행복의 아이콘으로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모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의 모습 그 자체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5월은 모란이 꽃을 피우는 시기인 동시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달이었다. 이를 기념해 부처님을 상징하는 화중지왕 모란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여태껏 가지고 있던 힘든 마음의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용덕 작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온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